

‘한강 노벨상 받는 날’ 광주시민들 밤편지 띄운다

수상 시간 맞춰 시청 시민홀서 축하행사 개최 작가에 편지쓰기·강연·재즈·샌드아트 등 다채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광주에서 마련된다. 광주시는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노벨상 시상식 일정에 맞춰 오는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시민 축하행사를 연다. ‘광주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강연과 한강 작가에게 축하 편지쓰기, 홀로그램으로 부활한 작품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축하메시지 등으로 구성됐다. 신형철 서울대 교수는 “소설 ‘소년이

온다’는 한강을 뛰어넘는 한강의 소설’이라고 평가한 배경과 5·18 광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도록 강의한다. 시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단체, 작가 등단을 준비하는 문예창작과 학생 등 평소 한강 작가의 작품과 문학을 즐기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축하의 장을 펼친다. 지역 선후배, 동료 작가들이 함께 시 낭송과 시극을 통해 문학인의 밤을 수놓는다.

음악과 미술, 극예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재탄생한 ‘한강의 시간’을 만나볼 수 있다. 지역 출신 재즈사운드 뮤직그룹 ‘솔 뮤직컴퍼니’가 재즈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된 한강 작가의 자작곡 공연을 선보인다. 주홍 작가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를 특유의 미술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샌드아트를 선보인다. 또 극단 ‘신명’의 모노드라마는 ‘소년이

온다’ 속 동호 어머니의 담담한 독백을 통해 이들의 죽음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계속되는 어머니의 고통을 전한다. 한강 작가에게 보내는 시민들의 편지 쓰기는 노벨상 시상식과 함께 11일 자정에 시작된다. 참여 방법은 행사 전 온라인을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하고 현장에서 손글씨로 편지를 작성하면 된다. 현장 참여도 가능하며 시민들의 편지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작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에는 인공지능(AI) 홀로

그램으로 복원된 작품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의 실제인물인 ‘문재학 열사’를 만날 수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등장할 예정인 ‘AI 동호’는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란다’는 한강 작가의 간절함에 응답하듯 등장해 감동을 선사한다. 강기정 시장은 “5·18과 광주를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한 작은 자리를 준비한 만큼 시상식이 열리는 날 함께 마음을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변은진기자

전남도,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박차

선제대응지역 지정 용역 착수...산업용 전기료 인하 건의

전남도가 세계적 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놓인 여수 석유화학산업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 11월 착수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수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지원도 요구할 수 있어 위기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여수 석유화학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산업용 전기료 인하 ▲납사 관세 면제 ▲석유수지 관세 불균형 해소 ▲대기배출 허용 기준 완화 ▲플래어스택 최소 발열량 규제 해소 ▲폐수 공공관료 설치 지원 ▲전력 및 공급용수 공급 시설 조기 착공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중 산업용 전기료 인하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한 핵심 요소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개최된 3개 시도 석유화학산업 간담회에선 충남 대산, 울산과 산업기반이 다른 여수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곧 지역 경제의 위기를 강조하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주요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전략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위기 대응 협의체와 TF팀을 구성해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달에는 여수 석유화학 위기대응 전략토론회를 개최해 30개 사업 5506천억 규모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수산단 소재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장치 유지관리 등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전남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해 계획이다.

고부가 친환경 소재산업 육성과 수소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등 신산업 유치를 통해 장기 산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업종 다변화를 통해 자생력을 높일 방침이다. /양시원기자



공유축제 ‘필(Feel)통(通)타이거즈’ 광주 광산구는 3일 장애인복지관에서 한해살이 공유 축제인 ‘필(Feel)통(通)타이거즈’를 개최해 즐거움을 제공했다. ‘필(Feel)통(通)타이거즈’는 올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야구를 주제로도 전과 성장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노력했던 활동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새해를 설계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한해살이와 공연 발표, 체험활동, 전시 등으로 진행됐다. <광주광산구 제공>

김지사 “5·18 유공자 손해배상 판결 환영”

남도오월문화제·학술토론회 등 기념사업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최근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히 긴 세월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던 당사자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5·18민주화운동 역사 보존과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제45주년 기념식과 남도 오월 문화제, 학술토론회 등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시원기자

김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히 긴 세월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던 당사자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5·18민주화운동 역사 보존과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제45주년 기념식과 남도 오월 문화제, 학술토론회 등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시원기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3일 “최근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및 ㈜팜스빌과 함께 전남도에서 육성한 흰색 목이버섯 ‘세안’을 비롯한 버섯 신품종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원 개발 연구 결과 및 우수 버섯 품종 산업화 ▲버섯류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및 제품 산업화 ▲버섯류 소재 원료 생산 지원, 효능 평가 등 기술 지원 ▲상호 협력사업 발굴 및 연구개발 결과물 공유 등이다. /김재정기자

조국혁신당 ‘탄핵다방’ 광주점 연다

6일 오후 5·18민주광장에 8호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일 오후 5시 30분 광주 5·18 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탄핵다방’ 8호점을 연다.

‘탄핵다방’은 지난 11월 2일 대구를 시작으로 목포·서울·전주·대전·제주·김해 등 전국을 순회하며 한달여 간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운영 취지에 지역을 막론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통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 균계이트 등 현 정부의 국정 농단과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당내 주요 정책·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개혁 4법’과 ‘담배이코차단 6법(서지현법)’, ‘지역살리기 5법’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과 법안을 알리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탄핵다방’은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며 탄핵의 불씨를 전국으로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혁신당은 가장 먼저 주저 없이 탄핵의 문을 열고 있다”면서 “탄핵다방에는 시민과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전액 국비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 **훈련내용 : 디지털 일반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컴활2급준비반)	 미디어컨텐츠	 소프트웨어 & 빅데이터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오피스 교육	포토샵, 일러스트를 활용한 이미지 편집, 제작교육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코딩) 빅데이터 분석

▶ **입학안내 및 지원사항**

- ✓ 지원자격 : 18세 이상인 구직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 전형방법 : 입학선발평가 실시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 ✓ 훈련기간 : 1개월 ~ 6개월

▶ **훈련생 특전 : 훈련비 전액지원, 교재 및 실습재료 제공,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구분	취업성공패키지(해당자에 한함)	취업성공패키지 비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0,000원	-
참여수당	최대 월 284,000원	최대 월 200,000원
교통비	최대 월 50,000원	

※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수당은 대상자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 채용 사업주 지원 : 신규고용장려금**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장애인 1명당 월 35만원 ~ 9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입학상담 ☎ 062) 448-1188